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1
주주총회소집공고.................................................................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5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7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8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8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8
III. 경영참고사항................................................................................9
    1. 사업의 개요.....................................................................................9
    가. 업계의 현황 ................................................................................13
    나. 회사의 현황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20
      □ 재무제표의 승인.........................................................................20
      □ 이사의 선임.................................................................................73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76
    ※ 참고사항........................................................................................7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 년 02 월 21 일

회사 명 : 삼성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 김 기 남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전화) 02-2255-0114
(홈페이지) https://www.samsung.com/sec

작성책임자 : (직책) 재경 팀장 (성명) 남궁범
(전화) 031-277-7218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1기 정기)

◎ 제51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1. 일    시: 2020년 3월 18일(수) 오전 9시
2. 장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3.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제51기(2019.1.1~2019.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의 건
     - 제2-2호: 사내이사 최윤호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삼성전자는 이번 주주총회부터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를
도입하였습니다.

일정상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참여기간: 2020년 3월 8일 ~ 2020년 3월 17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제2항)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table>
<thead>
<tr>
<th>회차</th>
<th>개최일자</th>
<th>의 안 내 용</th>
<th>사외이사의 성명</th>
<th>찬반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이인호 (출석률 100%)</td>
<td>찬성</td>
</tr>
<tr>
<td></td>
<td></td>
<td></td>
<td>송광수 (출석률 100%)</td>
<td>찬성</td>
</tr>
<tr>
<td></td>
<td></td>
<td></td>
<td>김선욱 (출석률 100%)</td>
<td>찬성</td>
</tr>
<tr>
<td></td>
<td></td>
<td></td>
<td>박재완 (출석률 100%)</td>
<td>찬성</td>
</tr>
<tr>
<td></td>
<td></td>
<td></td>
<td>박병국 (출석률 100%)</td>
<td>찬성</td>
</tr>
<tr>
<td></td>
<td></td>
<td></td>
<td>김종훈 (출석률 100%)</td>
<td>찬성</td>
</tr>
</tbody>
</table>

1차 19.01.31

1) 2018년(제5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3) 2019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4) 삼성디스플레이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5) 삼성SDI㈜와 연구협력 파트너십 및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6) 2019년 사회공헌 매칭기금 운영계획 승인의 건
7) 삼성공정학재단 기부금 출연의 건
※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2차 19.02.26

1)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의 건
2) 제50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 ② 영업보고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제1호: 제50기(2018.1.1~2018.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2-2호: 감사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
   - 제3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삼성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건
   4) 국제기능적응 학원의 건
   5) 학교법인 충남삼성학원 기부금 출연의 건

※ 2019년 3월 20일 이인호, 송광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퇴임하였습니다.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 내용 | 사외이사의 성명 | 박재완 | 김선욱 | 박병국 | 김종훈 | 안규리 | 김한조 |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3차</td>
<td>'19.03.20</td>
<td>①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② 이사 보수 책정의 건</td>
<td>박재완 (출석률 100%)</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r>
<tr>
<td>① 2019년 1분기 보고서 및 분기배당 승인의 건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가입의 건 ③ PLP사업 영업양수의 건 ④ 사원 단체보험 가입의 건 ⑤ 사회공헌 기부금 출연의 건 ⑥ 산업안전보건 관리기금 출연의 건 ⑦ DS부문 우수협력사 인센티브 기부금 출연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4차</td>
<td>'19.04.30</td>
<td>① 2019년 반기보고서 및 2분기 배당 승인의 건 ②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③ 사업장 패키지보험 가입의 건 ④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업의 건</td>
<td>김선욱 (출석률 100%)</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r>
<tr>
<td>① 2019년 3분기 보고서 및 분기배당 승인의 건 ② 퇴직연금 불입의 건 ③ 2020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④ 희망2020나눔캠페인 기부금 출연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⑤ 보고사항</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5차</td>
<td>'19.07.31</td>
<td>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② 퇴직연금 불입의 건 ③ 2020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④ 학사사정보고서 및 보고의 건</td>
<td>김한조 (출석률 100%)</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r>
<tr>
<td>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② 회장 연임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③ 2020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④ 학사사정보고서 및 보고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⑤ 보고사항</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6차</td>
<td>'19.10.31</td>
<td>① 2020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td>
<td>안규리 (출석률 100%)</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r>
<tr>
<td>① 2020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②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③ 2020년 퇴직연금 불입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④ 2020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⑤ 보고사항</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⑥ 2020년 감사사정보고서 및 보고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⑦ 보고사항</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⑧ 2020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7차</td>
<td>'19.11.29</td>
<td>① 감사사정보고서 및 보고의 건 ② 학사사정보고서 및 보고의 건 ③ 2020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④ 보고사항</td>
<td>김한조 (출석률 100%)</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r>
<tr>
<td>① 감사사정보고서 및 보고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② 회장 연임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③ 2020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r>
<td>④ 보고사항</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찬성</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2019년 3월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박재완 사외이사가 재선임되고 김한조, 안규리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table>
<thead>
<tr>
<th>위원회명</th>
<th>구성원</th>
<th>활동내역</th>
</tr>
</thead>
<tbody>
<tr>
<td>감사위원회</td>
<td>김선욱</td>
<td>'19.02.26 - 50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심의 - 2019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보고 - 2019년 감사사정보고서 및 보고의 건</td>
</tr>
<tr>
<td>감사위원회</td>
<td>김한조</td>
<td>'19.04.29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td>
</tr>
<tr>
<td>날짜</td>
<td>내용</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19.07.30 | - 2019년 반기보고서 보고  
               - 2019년 1/4분기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2019년 1/4분기 대외 후원금 현황 보고  
               -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계획 보고  
               - 2019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및 1/4분기 검토  |
| 19.10.28 | - 2019년 3/4분기 분기보고서 보고  
               - 2019년 3/4분기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 2019년 3/4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보고  
               - 2019년 3/4분기 대외 후원금 현황 보고  
               - 2019년 3/4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보고  |
| 19.11.14 | - 지정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조건 결정  
               - 2019년 상반기 감사실적 보고  
               - 2019년 2/4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보고  |
| 19.01.30 |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삼성디스플레이㈜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2) 삼성SDI㈜와 연구설비 매매 및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18년 4/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 19.02.26 |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건  
               - 19.1/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 19.07.30 |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사업장 패키지보험 가입의 건  
               - 19.2/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 19.10.28 |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퇴직연금 불입의 건  
               - 19.3/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 19.11.29 |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퇴직연금 불입의 건  
               2) ’20년 대규모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
| 19.02.25 | - 2019년 이사보수한도 심의의 건  
               - 19.02.26 내부거래위원회의 건  |
| 19.04.30 | - 2019년 2/4분기 비감사업무 수행 검토 보고  
               - 2019년 2/4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보고  
               - 2019년 2/4분기 대외 후원금 현황 보고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승인  
               - 2019년 상반기 감사실적 보고  
               - 2019년 2/4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보고  |
| 19.04.29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삼성디스플레이㈜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2) 삼성SDI㈜와 연구설비 매매 및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19.1/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 19.07.30 |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사업장 패키지보험 가입의 건  
               - 19.2/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 19.10.28 |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퇴직연금 불입의 건  
               - 19.3/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 19.11.29 |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1) 퇴직연금 불입의 건  
               2) ’20년 대규모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

**내부거래위원회**

다음은 내부거래위원회의 내용입니다.

- **김선욱** (위원장)
- **박재완**
- **김한조**

19.01.30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 1) 삼성디스플레이㈜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2) 삼성SDI㈜와 연구설비 매매 및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② ’18년 4/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19.02.26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 1)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건

19.04.29 - ①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②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 1) 삼성디스플레이㈜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2) 삼성SDI㈜와 연구설비 매매 및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③ ’19.1/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19.07.30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 1) 사업장 패키지보험 가입의 건

19.10.28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 1) 퇴직연금 불입의 건

19.11.29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 1) 퇴직연금 불입의 건

**보상위원회**

- **박재완**
- **박병국**
- **김종훈**

19.02.25 - ① 2019년 이사보수한도 심의의 건

19.04.30 - ① 위원장 선임의 건

**거버넌스**

- **박재완**

19.01.30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 1) 삼성디스플레이㈜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2) 삼성SDI㈜와 연구설비 매매 및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19.02.26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 1)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건

19.04.29 - ①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②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 1) 삼성디스플레이㈜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2) 삼성SDI㈜와 연구설비 매매 및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③ ’19.1/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19.07.30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 1) 사업장 패키지보험 가입의 건

19.10.28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 1) 퇴직연금 불입의 건

19.11.29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 1) 퇴직연금 불입의 건

19.02.25 - ① 2019년 이사보수한도 심의의 건

19.04.30 - ① 위원장 선임의 건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인원수</th>
<th>주총승인금액</th>
<th>지급총액</th>
<th>1인당 평균 지급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사외이사</td>
<td>6</td>
<td>46,500</td>
<td>906</td>
<td>151</td>
<td>가결</td>
</tr>
</tbody>
</table>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5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11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table>
<thead>
<tr>
<th>거래종류</th>
<th>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th>
<th>거래기간</th>
<th>거래금액</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table>
<thead>
<tr>
<th>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th>
<th>거래종류</th>
<th>거래기간</th>
<th>거래금액</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해외법인)</td>
<td>HHP 및 가전제품 매출입 등</td>
<td>2019.01~2019.12</td>
<td>261,181</td>
<td>15.3%</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NGUYEN Co., Ltd.(해외법인)</td>
<td>HHP 매출입 등</td>
<td>2019.01~2019.12</td>
<td>255,087</td>
<td>15.0%</td>
</tr>
<tr>
<td>Shanghai Samsung Semiconductor Co., Ltd.(해외법인)</td>
<td>반도체 매출입 등</td>
<td>2019.01~2019.12</td>
<td>184,946</td>
<td>10.9%</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Vietnam Co., Ltd.(해외법인)</td>
<td>HHP 매출입 등</td>
<td>2019.01~2019.12</td>
<td>183,425</td>
<td>10.8%</td>
</tr>
<tr>
<td>Samsung Semiconductor, Inc.(해외법인)</td>
<td>반도체 매출입 등</td>
<td>2019.01~2019.12</td>
<td>139,987</td>
<td>8.2%</td>
</tr>
</tbody>
</table>

※ 비율은 2018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 및 CE, IM 부문 산하 해외 9개 지역총괄과 DS 부문 산하 해외 5개 지역총괄의 생산·판매법인, Harman 산하 종속기업 등 240개의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전자 기업입니다.

사업군별로 보면 Set 사업에서는 TV를 비롯하여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CE 부문과 스마트폰 등 HHP, 네트워크시스템, 컴퓨터 등을 생산·판매하는 IM 부문이 있습니다. 부품사업에서는 DRAM, NAND Flash, 모바일AP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과 모바일·TV·모니터·노트북 PC용 등의 OLED 및 TFT-LCD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DP 사업의 DS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중 인수한 Harman 부문에서 Headunits,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스피커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제품]

<table>
<thead>
<tr>
<th>부문</th>
<th>주요 제품</th>
</tr>
</thead>
<tbody>
<tr>
<td>CE 부문</td>
<td>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td>
</tr>
<tr>
<td>IM 부문</td>
<td>HHP, 네트워크시스템, 컴퓨터 등</td>
</tr>
<tr>
<td>DS 부문</td>
<td>반도체 사업: DRAM, NAND Flash, 모바일AP 등</td>
</tr>
<tr>
<td></td>
<td>DP 사업: OLED 스마트폰 패널, LCD TV 패널, 모니터 패널 등</td>
</tr>
<tr>
<td>Harman 부문</td>
<td>Headunits,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스피커 등</td>
</tr>
</tbody>
</table>

지역별로 보면 국내에는 CE, IM 부문 및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본사와 28개의 종속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수원, 구미, 기흥, 화성, 평택, 광주사업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종속기업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 국내 대리점 판매를 전담하는 삼성전자판매, 제품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및 제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삼성전자로지텍 등 총 28개의 비상장 종속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는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생산, 판매,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212개의 해외 종속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주는 TV, HHP 등 Set제품의 미국 판매를 담당하는 SEA(뉴저지주, 미국), TV 생산을 담당하는 SII(샌디에이고, 미국),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SAS(오스틴, 미국), 전장부품사업 등을 담당하는 Harman(스탬퍼드, 미국) 등을 포함하여 총 54개의 판매·생산 등을 담당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이 있습니다.

유럽은 Set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SEUK(영국), SEF(프랑스), SEG(독일), SEI(이탈리아) 등
의 판매법인이 있으며, TV 생산을 담당하는 SESK(슬로바키아), SEH(헝가리) 및 냉장고 등
가전생산을 담당하는 SEPM(폴란드) 등의 생산법인 등을 포함하여 총
66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중국 제외)는 SAPL(싱가포르)을 중심으로 SEAU(호주), SEPCO(필리핀), SME(말레
이시아) 등 판매법인이 있으며, HHP 생산법인 SEV・SEVT(베트남), TV 등생산법인
SEHC(베트남), HHP 등 복합 생산법인 SIEL(인도) 등을 포함하여 총 30개의 법인이 운영되
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내 Set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SCIC(베이징), SEHK(홍콩) 등의 판매법인과
Set제품의 생산, 부품 생산 및 임가공을 담당하는 소주, 심천 등의 생산법인(SSEC, SESS,
SSET 등)을 포함하여 총 34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CIS,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판매・생산 등을 담당하는 28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CE 부문]

(산업의 특성 등)

TV산업은 1926년 흑백 TV 개발, 1954년 RCA사가 Color TV(21") 양산・판매를 시작한
이래로 트리니트론 브라운관(1967년), 완전평면 브라운관(1996년) 개발 등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주요 국가 보급률이 90%를 넘어서면서 브라운관 TV사업의 성장은 정체되었
습니다. 그러나 Flat Panel TV(LCD, PDP) 출시, 디지털 방송 확산(영・미 1998년~ )을 통
해 TV 시장은 성장 모멘텀을 되찾았으며, FPTV는 화질, 디자인 등 제품 성능 향상과 지속적
인 Set가격 하락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며 기존 CRT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3D TV가 출시되었고,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인
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의 부상과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 확대로 스마트 TV
시장이 태동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화질 및 해상도가 혁신적으로 높아진 UHD TV,
2014년에는 새로운 플랫폼TV인 Curved TV가 출시되었으며 2015년에는 퀀텀닷 TV가 상용화
되는 등 TV 시장은 급속히 진화하였습니다.

전체 TV 수요는 2017년 기준 2억 1,510만대 수준으로 LCD TV 수요가 2억 1천만대로
99% 이상의 시장 점유를 이어 나갔으며, OLED 수요는 159만대로 성장하였으나 비중은
0.7%로 영향이 미미하였습니다. 2018년도 전체 TV 수요는 2억 2,100만대 이상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 성장하였습니다.

최근 TV시장은 고해상도 대형화면에 대한 Needs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UHD TV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1억 1,153만대로 시장 비중 52% 수준이 됨 전망이며, 75"이상 초대형 시
장도 당사의 수요 창출 노력으로 전년 대비 65%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QLED 연간 수요도 당사의 지속적인 제품력 개선 및 프리미엄 수요증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0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 부문]

(산업의 특성 등)

휴대폰 산업은 1980년대 초 음성 통화만 가능했던 1세대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작하여 음성 및 문자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CDMA와 GSM의 2세대 디지털 방식을 거쳐, 음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까지 전송 가능한 WCDMA 등의 3세대 이동 통신으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이 가능한 4세대 LTE 서비스가 글로벌로 확산되어 2019년에 판매된 휴대폰의 76%가 LTE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출처: Strategy Analytics 2019.11월) 또한, 2019년초 4차 산업 혁명을 포함하여 미래 변화를 주도할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가 한국과 미국에서 본격 상용화되었으며, 유럽과 호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5G 스마트폰은 2020년 1.6억대 판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출처: Strategy Analytics 2019.11월)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됨에 따라 고성능 AP, 대화면 AMOLED Display, 멀티카메라, 센서, 방수 방진, 생체 인증과 같은 Hardware뿐 아니라 플랫폼 기반의 Application, UX, Mobile Payment, AI, AR 등의 Software와 서비스 경쟁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DS 부문]

- 반도체 사업

(산업의 특성 등)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연산과 추론 등 논리적인 정보처리 기능을 하는 System LSI(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읽고(Read) 쓸 수(Write) 있는 램(RAM) 제품과 읽기만 할 수 있는 램(SRAM)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램(RAM)은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은 지워지며 휴면 메모리(Volatile Memory)라고 하며, 컴퓨터의 주 기억장치, 응용프로그램의 일시적 로딩(Loading), 데이터의 일시적 저장 등에 사용됩니다. System LSI 제품은 응용처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PC 및 모바일 기기, Server 등의 중앙처리 장치인 CPU(Central Processing Unit)이고 가전, 네트워크,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용 AP제품과 이미지 센서, 기타 주문형 반도체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 저하 및 태블릿 시장 역성장 등 모바일 기기의 수요 감소로 성장률 감소의 요인이 있으나, 서버 등 정보 저장 기기의 고용량화로 메모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Automotive 등 신규 시장이 창출되어
향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기반 또한 다변화되어 수급의 변동은 과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DP 사업

(산업의 특성 등)

디스플레이는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화면표시장치를 지칭합니다. 표시방식 측면에서 표시소자가 능동적으로 구동되는(Active Matrix) 방식이 주류이며,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와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가 이에 해당합니다.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이용한 화면표시장치로, 명암비와 색상화율이 높고 색재현 범위가 넓으며 응답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OLED 디스플레이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사용 등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중시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過去에는 OLED로 고해상도의 장소판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 시장의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당사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여 시장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OLED는 LCD 디스플레이의 단점을 극복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Foldable, Rollable, Automotive 등 다른 응용처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앞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FT-LCD는 액정을 이용한 화면표시장치로서, 가볍고 얇으면서도 높은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어, 휴대성이 강조되는 휴대전화에서부터 높은 해상도와 밝기를 요구하는 대형 TV까지 응용가가 매우 다양합니다. 대형 TFT-LCD 산업은 노트북을 시작으로 모니터, TV 순서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여 왔으나, 보급률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arman 부문]

(산업의 특성 등)

전장부품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자동차 Global 생산량은 2019년에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2021년까지 연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출처: LMC Global Production Forecast, 2019.12월) 최근 수년간 자동차 산업 내에서 커넥티비티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 왔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공유 모빌리티를 두 축으로 기술발전의 선두에서 서는 것을 지향하면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오디오 산업(커넥티드 홈, 헤드폰, 스마트 오디오 등)은 2023년까지 연평균 약 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출처: FutureSource, 2019.11월), 프로페셔널 시장은 지난 5년간 연간 약 5~6% 성장했습니다.(출처: AVIXA, Future Source, Global Info & Arizton, 2019.6월)

커넥티드 홈과 스마트 오디오에서의 기술혁신 결과로 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왔으며, 세계적인 성장 기조 속에 이 분야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수요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CE 부문]

(국내외 시장여건 등)

TV시장의 Mega Trend인 대형화·고화질화가 Device간, 업체간 경쟁 격화에 따라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제품력, 브랜드파워를 앞세운 Major 업체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화질 및 슬림 제품에 대한 소비자 Needs가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소재인 LED BLU(Back Light Unit)를 적용하여 TV의 밝기와 명암비는 높이고 소비전력을 낮춘 LED TV가 시장의 Main Stream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시청자가 컨텐츠를 구매하는 생태계 변화에 맞춰, 당사는 TV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UX 혁신을 이뤄냈습니다.(2015년), 연결된 주변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한 아나하나의 리모컨으로 인식된 주변기를 통제할 수 있고, TV 시청을 방해 받지 않고 다양한 소스를 한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2016년)

또한 TV에서의 경험을 모바일로 확장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게 스마트 허브를 이용하고 TV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능형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불륨, 채널 이동, 화면 모드 변경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TV 제어 기능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2017년)

그리고 점차 대형화되는 TV 시장 변화에 맞추어 75"와 82" 초대형 사이즈 TV 판매를 주도하여 수요를 확대했고, 동시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가치를 제공하는 Ambient Mode(한국: 매직 스크린 모드)를 Q라인업 차별화로 도입하였습니다. Bixby 전사 음성 슬루션 도입을 통해 IoT / AI로 소비자와 시장 변화 대응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컨텐츠·정보를 어디 보고 들을 수 있는 MDE(Multi Device Experience) 이용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대형화·고화질화 트렌드가 확대되는 가운데 QLED는 더욱더 강화된 제품력으로 시장에서 큰 호평을 얻었습니다. 초대형 적용이 확대된 라인업으로 소비자에게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한층 개선된 화질로 전문가 및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해상도 TV인 QLED 8K TV의 글로벌 시장 도입을 통해서 트렌드 및 소비자 Needs에 맞는 프리미엄 시장을 창출해 나갔습니다.(2019년)

2020년에는 프리미엄 TV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화질, 사운드, 플랫폼 혁신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당사가 주도하고 있는 8K 시장 확대에 따른 업체간 제품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8K 관련 전송 표준 및 송수신 기술 등 8K 시장 본격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기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업계 리더로서 확대되는 8K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라인업 확대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디자인 및 기능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8K TV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려 합니다.
<CE 부문 주요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table>
<thead>
<tr>
<th>제품</th>
<th>2019년</th>
<th>2018년</th>
<th>2017년</th>
</tr>
</thead>
<tbody>
<tr>
<td>TV</td>
<td>30.9%</td>
<td>29.0%</td>
<td>26.5%</td>
</tr>
</tbody>
</table>

※ 2017년, 2018년, 2019년 시장점유율은 외부조사기관인 IHS의 세계시장점유율 자료 (금액기준)를 활용하였습니다.

(영업의 개황 등)


2017년에 당사는 QLED TV로 신규 카테고리 창출을 통해 어떤 밝기 영역에서도 정확한 컬러 표현의 가능성을 확보하였고, 최고 2,000 nit 밝기까지 제공하여 더 이상의 화질 눈부시기 필요 없는 궁극의 화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유명 아티스트와 갤러리·미술관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적인 명화, 사진 작품부터 개인 사진 등의 예술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는 '더 프레임(The Frame) TV'를 선보여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일체화된 'Screen Everywhere'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당사는 프리미엄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QLED + 초대형' 두가지 축으로 프리미엄 TV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QLED에 로컬디밍 기술을 적용하여 블랙 및 콘트라스트 등 화질 개선을 통한 시청 경험 향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탐색하고 즐길 수 있으며 기기 간의 연결성 강화 및 AI·IoT 경험이 증가하여 스타일 라이프 경험을 선사하며 라이프 스타일 경험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신호 케이블과 TV 전원선을 결합한 단 하나의 투명 케이블을 통한 설치, 비사철기간에도 TV를 공간과 조화롭게 꾸미고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능인 Ambient Mode로 TV 자체의 아름다움을 넘어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TV를 지향하였습니다.

2019년에 당사는 세계 최초로 8K TV를 글로벌 시장에 공개하여 다시 한번 TV Industry의 프리미엄 제품 리더십을 주도하였습니다. QLED 라인업은 중형에서 초대형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화질도 한층 더 강화되어 전문가 및 소비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QLED 뿐만 아니라 UHD 라인업...
에서도 초대형 사이즈를 구비해서 건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에 당사는 기존 프리미엄 TV 전략을 지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QLED는 8K 라인업 확대 및 하이 충 강화된 QLED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여, 프리미엄 시장에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초대형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더불어 Mass 모델인 일반 UHD 라인업도 디자인 및 사양을 대폭 개선하는 등 경쟁사 UHD 모델과 차별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거 공간에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자 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라이프 스타일’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더 세리프'를 처음으로 출시하고 2017년 '더 프레임', 2019년 모바일 컨텐츠에 최적화된 '더 세로'를 출시하였습니다.

'더 세리프(The Serif)'는 2016년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가구 디자이너 로낭&에르완 부홀렉(Ronan & Erwan Bouroullec) 형제가 참여해 탄생한 제품으로 섬세한 가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 '더 세리프'는 대형 TV 센스 스-Methods를 반영해 기존 24~40"에서 중대형 43·49·55"로 제출하였습니다.

'더 프레임(The Frame)'은 '아트모드(Art Mode)' 기능을 통해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에는 미술 작품이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워 마치 아트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로 출시 3년차인 2019년형 '더 프레임'은 Q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보다 생생한 고화질을 구현하며 TV와 연결되는 모든 선을 투명한 하나의 케이블로 통합한 '매직케이블'이 적용되어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TV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더 세로(The Sero)'는 모바일과 컨텐츠를 즐기는데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기존의 TV와는 달리 세로 방향의 스크린을 기본으로 하는 신개념 TV입니다. 이 제품은 모바일 컨텐츠에 최적화된 세로 스크린을 지원해 완전한 화면으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TV 화면을 가로로 회전시켜 기존 TV와 같은 시청 경험도 가능합니다.

[IM 부문]

(국내외 시장영향 동)


<IM 부문 주요 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table>
<thead>
<tr>
<th>제품</th>
<th>2019년</th>
<th>2018년</th>
<th>2017년</th>
</tr>
</thead>
<tbody>
<tr>
<td>H H P</td>
<td>17.5%</td>
<td>17.4%</td>
<td>19.5%</td>
</tr>
</tbody>
</table>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주력사업인 휴대폰 시장에서 글로벌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1위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뿐만 아니라 전체 모바일 시장에서의 사업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태블릿과 웨어러블, 액세서리 등의 제품들과 함께 서비스, 온라인, B2B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당사가 보유한 프리미엄에서 보급형까지의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라인업을 활용하여 지역별 시장 상황과 경쟁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갤럭시 S와 갤럭시 Note 시리즈를 통하여 대화면 AMOLED Display와 Edge 디자인, Infinity Display, 트리플 카메라, 블루투스 S펜, 방수 방진, 고속 무선 충전, 무선 배터리 공유, 초음파 방식의 온 스크린 지문인식 등 고객 Needs 기반의 차별화된 기능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출시로 5G 시장 리더십을 선점하고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Galaxy Fold 등 품택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모바일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 Needs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쿼드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로테이팅 카메라와 새로운 Infinity Display, 5G 등 혁신 기술을 적극 채택하여 제품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외에도 갤럭시 Tab S 등의 프리미엄 태블릿 및 스마트워치, 무선 블루투스이어폰과 같은 웨어러블 제품과 급속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무선충전스탠드 등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을 통해 당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더욱 풍부하고 편리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더불어 당사는 그동안 Samsung Pay, Samsung Health, Bixby, SmartThings 등의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한층 더 진화한 New Bixby를 통해 일상 어디에서나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고객이 어느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일관되고 끊김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는 Multi Device Experience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 외에도 TV, 냉장고, 에어컨 등 다양한 제품군에 Bixby를 적용하고 있으며, Ecosystem확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DS 부문]

- 반도체 사업

(국내외 시장여건 등)

DRAM은 2019년 데이터센터 중심의 재고 조정으로 일부 약세가 있었으나, 재고 건전화로
2020년 구매 수요는 회복될 전망입니다. 비·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 요인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나 신규 CPU 고용량 시장 선점 및 5G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적기 대응으로 M/S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NAND는 Cloud Service 강화로 인한 SSD 수요 확대, PC 고용량화, 5G 도입 및 Game Console 신규 수요 발생 등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은 전년 대비 완화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사업 주요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table>
<thead>
<tr>
<th>제품</th>
<th>2019년</th>
<th>2018년</th>
<th>2017년</th>
</tr>
</thead>
<tbody>
<tr>
<td>DRAM</td>
<td>44.7%</td>
<td>43.9%</td>
<td>45.8%</td>
</tr>
</tbody>
</table>

※ 2017년, 2018년 시장점유율은 외부조사기관인 DRAMeXchange의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금액기준)를 활용하였으며, 2019년 시장점유율은 당사 추정치입니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2019년 10나노급 3세대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AI・슈퍼컴퓨터에 구현되는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HBM2)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 Vertical NAND는 6세대 적층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고성능 SSD에 탑재하여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사는 신관 공정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제품 확대 및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이용한 응용처별 최적 대응을 통해 메모리 1위 업체로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System LSI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제품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IoT, Wearable, Automotive 등 신규 시장에서의 성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SOC 제품은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 증가 등으로 모바일 시장 성장은 제한적이며, 5G / Automotive / AI 등 신규 기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바일 고성능 및 중저가용 AP모뎀 통합칩을 공급하고 있으며, 2G~5G를 동시에 지원하는 멀티모드 모뎀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사업화하여 5G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Foundry는 2019년 상반기 세계최초 EUV 공정을 적용한 7나노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5나노・2나노 개발 및 GAA(Gate All Around)기술을 적용한 3나노 등 차세대 공정도 적기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CIS, DDI, PMIC 등 공정 퍼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DP 사업

(국내외 시장여건 등)

중소형 OLED 패널은 5G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채용 증가가 예상되며 업계 내 생산능력 확대로 인한 경쟁심화로 시장 내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6.1억대 수준이었으며,

한편, 대형 LCD 패널의 경우 수요는 정체에 따라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초대형, 초고화질 TV 및 Curved, Gaming 모니터 등 프리미엄 제품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DP 사업 주요 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table>
<thead>
<tr>
<th>제품</th>
<th>2019년</th>
<th>2018년</th>
<th>2017년</th>
</tr>
</thead>
<tbody>
<tr>
<td>스마트폰패널</td>
<td>45.6%</td>
<td>47.6%</td>
<td>43.8%</td>
</tr>
</tbody>
</table>

※ 2017년, 2018년 시장점유율은 외부조사기관인 IHS의 세계시장점유율 자료(스마트폰패널-금액기준)를 활용하였으며, 2019년 시장점유율은 당사 추정치입니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2007년 세계 최초로 OLED 제품의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중소형 OLED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외에도 Foldable, Tablet, Watch, Notebook, Automotive 등으로 제품군을 다각화하여 명실상부한 OLED 디스플레이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당사는 Flexible OLED와 Rigid OLED 패널을 통해 프리미엄부터 보급형 스탠드까지 최적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차별화된 기능과 디자인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시장으로부터 엄격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G 이동통신 환경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저소비전력, 초박형 디자인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OLED 패널의 채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당사는 OLED 패널의 기본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차별화된 기술 및 디자인의 적용 환대를 통해 고객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oldable 제품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관련 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대형 LCD 패널은 TV 패널 시장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패널 공급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당사는 초대형, 8K 초고화질 등 고부가 제품의 비중을 지속 확대할 뿐만 아니라 Curved, Gaming 등 프리미엄 모니터 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arman 부문]

(국내외 시장여건 등)
자동차와 프로페셔널/소비자 오디오 시장은 경쟁이 매우 심한 가운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카 분야에는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력하는 여러 회사들(Alpine, Aptiv, Continental, Mitsubishi, Panasonic 등)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넥티드카 영역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자율주행 등 가장 앞선 기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 분야는 현재 주요 업체들과 신규업체들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오디오시스템 분야도 주요 업체들(Bose, Pioneer, Panasonic)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미래에도 이 분야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예상되며 여러 카오디오 업체들은 다양한 음향관리 솔루션 개발 등으로 차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분야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오디오 산업은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 집중도가 낮으며 소수의 선도업체들(Amazon, Beats, Bose, Ultimate Ears 등)이 있습니다. 특히 커넥티드홈과 스마트스피커 제품이 시장을 계속 포화 상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서 진입하는 새로운 업체들과 기존 업체들간 경쟁 상황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로페셔널 산업은 제품 종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제품의 응용방식에 따라 다양한 업체들이 진출한 상태입니다. QSC와 Yamaha는 프로페셔널 산업 내에서 널리 알려진 선도업체입니다. 향후 현재 동 산업 내 진출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커넥티드홈과 스마트스피커 제품의 대중화에 따라 서비스 등 다른 산업분야로부터의 신규 진출 업체들로 인한 경쟁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Harman 부문 주요 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table>
<thead>
<tr>
<th>제품</th>
<th>2019년</th>
<th>2018년</th>
<th>2017년</th>
</tr>
</thead>
<tbody>
<tr>
<td>Headunits</td>
<td>24.8%</td>
<td>18.8%</td>
<td>25.4%</td>
</tr>
</tbody>
</table>

※ Headunits은 디스플레이 오디오, 텔레메틱스, 루프트 센서 박스 등을 제외한 별도 제품입니다.
※ 2017년, 2018년, 2019년 시장점유율은 외부조사기관인 IHS와 LMC의 자료를 활용한 당사 추정치입니다.

(영업의 개황 등)

당사는 전장부품 및 프로페셔널/소비자 오디오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어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 전략적 인수합병, 그리고 널리 알려진 브랜드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당사의 Harman 부문은 전장부품시장에서 선도업체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 시장에서부터 고급특화시장에 걸쳐 차량들에 지속적으로 폭넓고 다양한 브랜드들을 활용하는 한편 Harman 브랜드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카오디오와 커넥티비티 분야에서 끊임없이 혁신에 집중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공존을 견고히 하
念전자시스템 dart.fss.or.kr
Page 20

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선도기술인 OTA(Over the Air)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 커넥티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자동차시장에서의 성공요인들은 프로페셔널/소비자 오디오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미상 3회, 아카데미상 2회 등을 수상한 바와 같이 Harman 브랜드들은 일상적인 소비자들과 음악 애호가 사이에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무선 스마트 스피커와 같은 전도 유망한 분야들에서 신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신규 고객들을 당사로 유인함과 동시에 브랜드 평판을 더욱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 통해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전장부품 등의 산업분야에서 선도업체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의 개요에 기재된 향후 전망치는 사실 경제연구소 및 국가기관 발표자료 등을 기초로 당사에서 분석한 예측자료이므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직도]

※ 조직도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1호 의안) 제51기(2019.1.1-2019.12.3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월 24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연결 대차대조표)

<table>
<thead>
<tr>
<th>자산</th>
<th>제 51 기</th>
<th>제 50 기</th>
</tr>
</thead>
<tbody>
<tr>
<td>유동자산</td>
<td>181,385,260</td>
<td>174,697,424</td>
</tr>
<tr>
<td>현금및현금성자산</td>
<td>26,885,999</td>
<td>30,340,505</td>
</tr>
<tr>
<td>단기금융상품</td>
<td>76,252,052</td>
<td>65,893,797</td>
</tr>
<tr>
<td>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td>
<td>10,712,216</td>
<td>9,053,393</td>
</tr>
<tr>
<td>단기상각후원가금융자산</td>
<td>1,727,436</td>
<td>2,001,948</td>
</tr>
<tr>
<td>매출채권</td>
<td>35,131,343</td>
<td>33,867,733</td>
</tr>
<tr>
<td>미수금</td>
<td>4,179,120</td>
<td>3,080,733</td>
</tr>
<tr>
<td>선급금</td>
<td>1,426,833</td>
<td>1,361,807</td>
</tr>
<tr>
<td>선급비용</td>
<td>2,406,220</td>
<td>4,136,167</td>
</tr>
<tr>
<td>재고자산</td>
<td>26,766,464</td>
<td>28,984,704</td>
</tr>
<tr>
<td>기타유동자산</td>
<td>2,695,577</td>
<td>2,326,337</td>
</tr>
<tr>
<td>비유동자산</td>
<td>171,179,237</td>
<td>164,659,820</td>
</tr>
<tr>
<td>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td>
<td>238,309</td>
<td></td>
</tr>
<tr>
<td>단기보유금융자산</td>
<td>8,920,712</td>
<td>7,301,351</td>
</tr>
<tr>
<td>장기보유금융자산</td>
<td>1,049,004</td>
<td>775,427</td>
</tr>
<tr>
<td>자산 총계</td>
<td>352,564,497</td>
<td>339,357,244</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유동자산</td>
<td>7,591,612</td>
<td>7,313,206</td>
</tr>
<tr>
<td>비유동자산</td>
<td>345,072,885</td>
<td>331,844,038</td>
</tr>
<tr>
<td>유형자산</td>
<td>119,825,474</td>
<td>115,416,724</td>
</tr>
<tr>
<td>무형자산</td>
<td>20,703,504</td>
<td>14,891,598</td>
</tr>
<tr>
<td>순확정급여자산</td>
<td>589,832</td>
<td>562,356</td>
</tr>
<tr>
<td>이연법인세자산</td>
<td>4,505,049</td>
<td>5,468,002</td>
</tr>
<tr>
<td>기타유동자산</td>
<td>7,994,050</td>
<td>12,692,847</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부채 총계</th>
<th>89,684,076</th>
<th>91,604,067</th>
</tr>
</thead>
<tbody>
<tr>
<td>유동부채</td>
<td>63,782,764</td>
<td>69,081,510</td>
</tr>
<tr>
<td>매입채무</td>
<td>8,718,222</td>
<td>8,479,916</td>
</tr>
<tr>
<td>단기차입금</td>
<td>14,393,468</td>
<td>13,586,660</td>
</tr>
<tr>
<td>미지급금</td>
<td>12,002,513</td>
<td>10,711,536</td>
</tr>
<tr>
<td>선수금</td>
<td>1,072,062</td>
<td>820,265</td>
</tr>
<tr>
<td>예수금</td>
<td>897,355</td>
<td>951,254</td>
</tr>
<tr>
<td>미지급비용</td>
<td>19,359,624</td>
<td>20,339,687</td>
</tr>
<tr>
<td>당기법인세부채</td>
<td>1,387,773</td>
<td>8,720,050</td>
</tr>
<tr>
<td>유동성장기부채</td>
<td>846,090</td>
<td>33,386</td>
</tr>
<tr>
<td>총부채</td>
<td>846,090</td>
<td>4,384,038</td>
</tr>
<tr>
<td>기타유동부채</td>
<td>1,037,030</td>
<td>1,054,718</td>
</tr>
<tr>
<td>비유동부채</td>
<td>25,901,312</td>
<td>22,522,557</td>
</tr>
<tr>
<td>사채</td>
<td>975,298</td>
<td>961,972</td>
</tr>
<tr>
<td>장기차입금</td>
<td>2,197,181</td>
<td>85,085</td>
</tr>
<tr>
<td>장기미지급금</td>
<td>2,184,249</td>
<td>3,194,043</td>
</tr>
<tr>
<td>순확정급여부채</td>
<td>470,780</td>
<td>504,064</td>
</tr>
<tr>
<td>이연법인세부채</td>
<td>17,053,808</td>
<td>15,162,523</td>
</tr>
<tr>
<td>장기충당부채</td>
<td>611,100</td>
<td>663,619</td>
</tr>
<tr>
<td>기타유동부채</td>
<td>2,408,896</td>
<td>1,951,251</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자본 총계</th>
<th>352,564,497</th>
<th>339,357,244</th>
</tr>
</thead>
<tbody>
<tr>
<td>지배기업 소유주지분</td>
<td>254,915,472</td>
<td>240,068,993</td>
</tr>
<tr>
<td>자본금</td>
<td>897,514</td>
<td>897,514</td>
</tr>
<tr>
<td>우선주자본금</td>
<td>119,467</td>
<td>119,467</td>
</tr>
<tr>
<td>보통주자본금</td>
<td>778,047</td>
<td>778,047</td>
</tr>
<tr>
<td>주식발행초과금</td>
<td>4,403,893</td>
<td>4,403,893</td>
</tr>
<tr>
<td>이익잉여금(결손금)</td>
<td>254,582,894</td>
<td>242,698,956</td>
</tr>
<tr>
<td>기타자본항목</td>
<td>(4,968,829)</td>
<td>(7,931,370)</td>
</tr>
<tr>
<td>비지배지분</td>
<td>7,964,949</td>
<td>7,684,184</td>
</tr>
<tr>
<td>자본총계</td>
<td>262,880,421</td>
<td>247,753,177</td>
</tr>
<tr>
<td>자본과부채총계</td>
<td>352,564,497</td>
<td>339,357,244</td>
</tr>
</tbody>
</table>
연결 손익계산서
제 51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제 50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단위 : 백만원)

<table>
<thead>
<tr>
<th>수익(매출액)</th>
<th>제 51 기</th>
<th>제 50 기</th>
</tr>
</thead>
<tbody>
<tr>
<td>매출원가</td>
<td>230,400,881</td>
<td>243,771,415</td>
</tr>
<tr>
<td>매출총이익</td>
<td>147,239,549</td>
<td>132,394,411</td>
</tr>
<tr>
<td>판매비와관리비</td>
<td>83,161,332</td>
<td>111,377,004</td>
</tr>
<tr>
<td>영업이익(손실)</td>
<td>55,392,823</td>
<td>52,490,335</td>
</tr>
<tr>
<td>기타수익</td>
<td>27,768,509</td>
<td>58,886,669</td>
</tr>
<tr>
<td>기타비용</td>
<td>1,778,666</td>
<td>1,485,037</td>
</tr>
<tr>
<td>지분법이익</td>
<td>1,414,707</td>
<td>1,142,018</td>
</tr>
<tr>
<td>금융수익</td>
<td>10,161,632</td>
<td>9,999,321</td>
</tr>
<tr>
<td>금융비용</td>
<td>412,960</td>
<td>539,845</td>
</tr>
<tr>
<td>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td>
<td>30,432,189</td>
<td>61,159,958</td>
</tr>
<tr>
<td>법인세비용</td>
<td>8,693,324</td>
<td>16,815,101</td>
</tr>
<tr>
<td>계속영업이익(손실)</td>
<td>21,738,865</td>
<td>44,344,857</td>
</tr>
<tr>
<td>당기순이익(손실)</td>
<td>21,738,865</td>
<td>44,344,857</td>
</tr>
<tr>
<td>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td>
<td></td>
<td></td>
</tr>
<tr>
<td>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td>
<td>21,505,054</td>
<td>43,890,877</td>
</tr>
<tr>
<td>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td>
<td>233,811</td>
<td>453,980</td>
</tr>
<tr>
<td>주당이익</td>
<td></td>
<td></td>
</tr>
<tr>
<td>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td>
<td>3,166</td>
<td>6,461</td>
</tr>
<tr>
<td>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td>
<td>3,166</td>
<td>6,461</td>
</tr>
</tbody>
</table>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51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제 50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단위 : 백만원)

<table>
<thead>
<tr>
<th>당기순이익(손실)</th>
<th>제 51 기</th>
<th>제 50 기</th>
</tr>
</thead>
<tbody>
<tr>
<td></td>
<td>21,738,865</td>
<td>44,344,857</td>
</tr>
</tbody>
</table>
- 연결 자본변동표

<table>
<thead>
<tr>
<th>자본명</th>
<th>자산</th>
<th>자산</th>
<th>자산</th>
<th>자산</th>
<th>자산</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기본</td>
<td>지배기업 소유주지분</td>
<td>비지배지분</td>
<td>자본</td>
<td>합계</td>
<td>자본</td>
</tr>
<tr>
<td>자본금</td>
<td>897,514</td>
<td>4,403,893</td>
<td>215,811,200</td>
<td>216,057,729</td>
<td>242,698,956</td>
</tr>
<tr>
<td>주식발행초 과금</td>
<td>4,403,89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이익잉여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자본항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매각예정분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매각예정분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회계정책 변경 누적효과</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수정후 기초자본</td>
<td>897,514</td>
<td>4,403,893</td>
<td>215,811,200</td>
<td>216,057,729</td>
<td>242,698,956</td>
</tr>
<tr>
<td>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당기순이익/손실(순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배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결실체 내 자본거래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자기주식의 취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자기주식의 소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결 자본변동표
제 51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제 50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단위 : 백만원)
연결 현금흐름표
제 51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제 50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단위: 백만원)

<table>
<thead>
<tr>
<th></th>
<th>제 51 기</th>
<th>제 50 기</th>
</tr>
</thead>
<tbody>
<tr>
<td>영업활동 현금흐름</td>
<td>45,382,915</td>
<td>67,031,863</td>
</tr>
<tr>
<td>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td>
<td>56,635,791</td>
<td>78,025,064</td>
</tr>
<tr>
<td>당기순이익</td>
<td>21,738,865</td>
<td>44,344,857</td>
</tr>
<tr>
<td>조정</td>
<td>37,442,682</td>
<td>43,604,573</td>
</tr>
<tr>
<td>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td>
<td>(2,545,756)</td>
<td>(9,924,366)</td>
</tr>
<tr>
<td>이자의 수취</td>
<td>2,306,401</td>
<td>1,788,520</td>
</tr>
<tr>
<td>이자의 지급</td>
<td>(579,979)</td>
<td>(548,272)</td>
</tr>
<tr>
<td>배당금 수입</td>
<td>241,801</td>
<td>215,992</td>
</tr>
<tr>
<td>법인세 납부액</td>
<td>(13,221,099)</td>
<td>(12,449,441)</td>
</tr>
<tr>
<td>투자활동 현금흐름</td>
<td>(39,948,171)</td>
<td>(52,240,453)</td>
</tr>
<tr>
<td>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증가)</td>
<td>(2,030,913)</td>
<td>(12,368,298)</td>
</tr>
<tr>
<td>단기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순감소(증가)</td>
<td>(818,089)</td>
<td>(1,436,844)</td>
</tr>
<tr>
<td>단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순감소(증가)</td>
<td>374,982</td>
<td>(139,668)</td>
</tr>
<tr>
<td>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td>
<td>4,586,610</td>
<td>255,850</td>
</tr>
<tr>
<td>장기금융상품의 처분</td>
<td>(12,725,465)</td>
<td>(7,678,654)</td>
</tr>
<tr>
<td>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td>
<td>694,584</td>
<td></td>
</tr>
<tr>
<td>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td>
<td>(825,027)</td>
<td>(158,716)</td>
</tr>
<tr>
<td>무기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td>
<td></td>
<td></td>
</tr>
<tr>
<td>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처분</td>
<td></td>
<td></td>
</tr>
<tr>
<td>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취득</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연결 현금흐름표

제 51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제 50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단위: 백만원)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1 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50 기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적 사항:
가. 연결회사의 개요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69년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1975년에 대한민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 및 종속기업(이하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사업은 CE부문, IM부문, DS부문과 Harman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은 디지털 TV, 모니터,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IM(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 communications) 부문은 휴대폰, 통신시스템, 컴퓨터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S(Device Solutions) 부문은 메모리 반도체, Foundry, System LSI 등의 반도체 사업과 OLED 및 LCD 패널 등의 디스플레이(DP)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arman 부문은 전장부품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 및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SEA) 등 240개의 종속기업(주석 1. 나 참조)을 연결대상으로 하고, 삼성전기㈜ 등 41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 종속기업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head>
<tr>
<th>지역</th>
<th>기업명</th>
<th>업종</th>
<th>지분율 (%)</th>
</tr>
</thead>
<tbody>
<tr>
<td>미주</td>
<td>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SEA)</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NeuroLogica Corp.</td>
<td>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Dacor Holdings, Inc.</td>
<td>Holding Company</td>
<td>100.0</td>
</tr>
<tr>
<td></td>
<td>Dacor, Inc.</td>
<td>가전제품 생산 및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Dacor Canada Co.</td>
<td>가전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EverythingDacor.com, Inc.</td>
<td>가전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Distinctive Appliances of California, Inc.</td>
<td>가전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HVAC America, LLC</td>
<td>에어컨 공조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martThings, Inc.</td>
<td>스마트홈기기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Oak Holdings, Inc.(SHI)</td>
<td>반도체 시스템 생산 및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tellus Technologies, Inc.</td>
<td>블록체이팅 기술개발 및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Joyent, Inc.</td>
<td>클라우드서비스</td>
<td>100.0</td>
</tr>
<tr>
<td></td>
<td>Prismview, LLC</td>
<td>디스플레이 생산 및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Research America, Inc(SRA)</td>
<td>R&amp;D</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Next LLC(SNX)</td>
<td>Holding Company</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Next Fund LLC(SNXF)</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100.0</td>
</tr>
<tr>
<td></td>
<td>Viv Labs, Inc.</td>
<td>인공지능 서비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Semiconductor, Inc.(SSI)</td>
<td>반도체/DP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SAS)</td>
<td>반도체 생산</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International, Inc.(SII)</td>
<td>CTV/모니터 생산</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Mexicana S.A. de C.V(SAMEX)</td>
<td>전자제품 생산</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Home Appliances America, LLC(SEHA)</td>
<td>가전제품 생산</td>
<td>100.0</td>
</tr>
<tr>
<td></td>
<td>SEMES America, Inc.</td>
<td>반도체 장비</td>
<td>100.0</td>
</tr>
<tr>
<td></td>
<td>Zhilabs Inc.</td>
<td>네트워크소프트웨어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Canada, Inc.(SECA)</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AdGeyr Technologies Inc.</td>
<td>디지털광고 플랫폼</td>
<td>100.0</td>
</tr>
<tr>
<td>지역</td>
<td>기업명</td>
<td>업종</td>
<td>지분율 (%)(*)</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럽/CIS</td>
<td>Samsung Electronics (UK) Ltd.(SEUK)</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Ltd.(SEL)</td>
<td>Holding Company</td>
<td>100.0</td>
</tr>
<tr>
<td>미주</td>
<td>Samsung Electronics Venezuela, C.A.(SEVEN)</td>
<td>마케팅 및 서비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a Colombia S.A.(SAMCOL)</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Panama, S.A.(SEPA)</td>
<td>컨설팅</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 Ltda.(SEDA)</td>
<td>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Argentina S.A.(SEASA)</td>
<td>마케팅 및 서비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Chile Limitada(SECH)</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Peru S.A.C.(SEPR)</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td>
<td>Holding Company</td>
<td>100.0</td>
</tr>
<tr>
<td></td>
<td>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Inc.</td>
<td>오디오제품 생산, 판매 및 R&amp;D</td>
<td>100.0</td>
</tr>
<tr>
<td></td>
<td>Harman Connected Services, Inc.</td>
<td>Connected Service Provider</td>
<td>100.0</td>
</tr>
<tr>
<td></td>
<td>Harman Connected Services Engineering Corp.</td>
<td>Connected Service Provider</td>
<td>100.0</td>
</tr>
<tr>
<td></td>
<td>Harman Connected Services South America S.R.L.</td>
<td>Connected Service Provider</td>
<td>100.0</td>
</tr>
<tr>
<td></td>
<td>Harman da Amazonia Industria Eletronica e Participacoes Ltda.</td>
<td>오디오제품 생산 및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Harman de Mexico, S. de R.L. de C.V.</td>
<td>오디오제품 생산 및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Harman do Brasil Industria Eletronica e Participacoes Ltda.</td>
<td>오디오제품 판매 및 R&amp;D</td>
<td>100.0</td>
</tr>
<tr>
<td></td>
<td>Harman Financial Group LLC</td>
<td>Management Company</td>
<td>100.0</td>
</tr>
<tr>
<td></td>
<td>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Canada Ltd.</td>
<td>오디오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Harman International Mexico, S. de R.L. de C.V.</td>
<td>오디오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Harman KG Holding, LLC</td>
<td>Holding Company</td>
<td>100.0</td>
</tr>
<tr>
<td></td>
<td>Harman Professional, Inc.</td>
<td>오디오제품 판매 및 R&amp;D</td>
<td>100.0</td>
</tr>
<tr>
<td></td>
<td>RT SV CO-INVEST, LP</td>
<td>벤처기업 투자</td>
<td>99.9</td>
</tr>
<tr>
<td></td>
<td>Beijing Integrated Circuit Industry International Fund, L.P.</td>
<td>벤처기업 투자</td>
<td>61.4</td>
</tr>
<tr>
<td></td>
<td>China Materialia New Materials 2016 Limited Partnership</td>
<td>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r>
<td>지역</td>
<td>기업명</td>
<td>업종</td>
<td>지분율 (%)(*)</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럽/CIS</td>
<td>AKG Acoustics GmbH</td>
<td>오디오제품 생산,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AMX UK Limited</td>
<td>오디오제품 판매</td>
<td>100.0</td>
</tr>
</tbody>
</table>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table>
<thead>
<tr>
<th>지역</th>
<th>기업명</th>
<th>업종</th>
<th>지분율 (%)(*)</th>
</tr>
</thead>
<tbody>
<tr>
<td>중동/아프리카</td>
<td>Samsung Electronics West Africa Ltd.(SEWA)</td>
<td>마케팅</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East Africa Ltd.(SEEA)</td>
<td>마케팅</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Gulf Electronics Co., Ltd.(SGE)</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지역</td>
<td>기업명</td>
<td>업종</td>
<td>지분율(%)&lt;sup&gt;(*)&lt;/sup&gt;</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아시아 (중국제외)</td>
<td>Samsung Japan Corporation(SJC)</td>
<td>반도체/DP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R&amp;D Institute Japan Co. Ltd.(SRJ)</td>
<td>R&amp;D</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Japan Co., Ltd.(SEJ)</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Display (M) Sdn. Bhd.(SDMA)</td>
<td>전자제품 생산</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M) Sdn. Bhd.(SEMA)</td>
<td>가전제품 생산</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Vina Electronics Co., Ltd.(SAVINA)</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Asia Private Ltd.(SAPL)</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India Electronics Private Ltd.(SIEL)</td>
<td>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R&amp;D Institute India–Bangalore Private Limited (SRI–Bangalore)</td>
<td>R&amp;D</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Nepal Services Pvt., Ltd(SNSL)</td>
<td>서비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Display Noida Private Limited(SDN)</td>
<td>DP 생산</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Australia Pty. Ltd.(SEAU)</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New Zealand Limited(SENZ)</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SEIN)</td>
<td>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PT Samsung Telecommunications Indonesia(STiN)</td>
<td>전자제품 판매 및 서비스</td>
<td>100.0</td>
</tr>
<tr>
<td></td>
<td>Thai Samsung Electronics Co., Ltd.(TSE)</td>
<td>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td>
<td>91.8</td>
</tr>
<tr>
<td></td>
<td>Laos Samsung Electronics Sole Co., Ltd(LSE)</td>
<td>마케팅</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Philippines Corporation(SEPCO)</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Display Vietnam Co., Ltd.(SDV)</td>
<td>DP 생산</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Malaysia Electronics (SME) Sdn. Bhd.(SME)</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body>
</table>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table>
<thead>
<tr>
<th>지역</th>
<th>기업명</th>
<th>업종</th>
<th>지분율(%)(*)</th>
</tr>
</thead>
<tbody>
<tr>
<td>중국</td>
<td>Samsung Display Dongguan Co., Ltd.(SDD)</td>
<td>DP 생산</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Display Tianjin Co., Ltd.(SDT)</td>
<td>DP 생산</td>
<td>95.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Hong Kong Co., Ltd.(SEHK)</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uzhou Samsung Electronics Co., Ltd.(SSEC)</td>
<td>가전제품 생산</td>
<td>88.3</td>
</tr>
<tr>
<td></td>
<td>Samsung Suzhou Electronics Export Co., Ltd.(SSEC-E)</td>
<td>가전제품 생산</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SCIC)</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Mobile R&amp;D Center China–Guangzhou (SRC–Guangzhou)</td>
<td>R&amp;D</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Tianjin Mobile Development Center(SRC–Tianjin)</td>
<td>R&amp;D</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R&amp;D Institute China–Shenzhen(SRC–Shenzhen)</td>
<td>R&amp;D</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Suzhou Semiconductor Co., Ltd.(SESS)</td>
<td>반도체 임가공</td>
<td>100.0</td>
</tr>
<tr>
<td></td>
<td>SEMES (XIAN) Co., Ltd.</td>
<td>반도체 장비 서비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Huizhou Co., Ltd.(SEHZ)</td>
<td>전자제품 생산</td>
<td>100.0</td>
</tr>
<tr>
<td></td>
<td>Tianjin Samsung Electronics Co., Ltd.(TSEC)</td>
<td>CTV/모니터 생산</td>
<td>91.2</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Taiwan Co., Ltd.(SET)</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Beijing Samsung Telecom R&amp;D Center(SRC–Beijing)</td>
<td>R&amp;D</td>
<td>100.0</td>
</tr>
<tr>
<td></td>
<td>Tianjin Samsung Telecom Technology Co., Ltd.(TSTC)</td>
<td>통신제품 생산</td>
<td>90.0</td>
</tr>
<tr>
<td></td>
<td>Shanghai Samsung Semiconductor Co., Ltd.(SSS)</td>
<td>반도체/DP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Suzhou Computer Co., Ltd.(SESC)</td>
<td>전자제품 생산</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Suzhou Module Co., Ltd.(SSM)</td>
<td>DP 생산</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Suzhou LCD Co., Ltd.(SSL)</td>
<td>DP 생산</td>
<td>60.0</td>
</tr>
<tr>
<td></td>
<td>Shenzhen Samsung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 Co., Ltd.(SSET)</td>
<td>통신제품 생산</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Semiconductor (China) R&amp;D Co., Ltd.(SSCR)</td>
<td>R&amp;D</td>
<td>100.0</td>
</tr>
<tr>
<td></td>
<td>Samsung Electronics China R&amp;D Center(SRC–Nanjing)</td>
<td>R&amp;D</td>
<td>100.0</td>
</tr>
<tr>
<td>지역</td>
<td>기업명</td>
<td>업종</td>
<td>지분율 (%) (*1)</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국내</td>
<td>삼성디스플레이㈜</td>
<td>DP 생산 및 판매</td>
<td>84.8</td>
</tr>
<tr>
<td></td>
<td>에스유미터리얼㈜</td>
<td>DP 부품 생산</td>
<td>50.0</td>
</tr>
<tr>
<td></td>
<td>스테코㈜</td>
<td>반도체 부품 생산</td>
<td>70.0</td>
</tr>
<tr>
<td></td>
<td>세메스㈜</td>
<td>반도체/FPD 장비 생산 및 판매</td>
<td>91.5</td>
</tr>
<tr>
<td></td>
<td>삼성전자서비스㈜</td>
<td>전자제품 수리서비스</td>
<td>99.3</td>
</tr>
<tr>
<td></td>
<td>삼성전자서비스씨메스㈜</td>
<td>서비스 클러스터</td>
<td>100.0</td>
</tr>
<tr>
<td></td>
<td>삼성전자판매㈜</td>
<td>전자제품 판매</td>
<td>100.0</td>
</tr>
<tr>
<td></td>
<td>삼성전자로자텍㈜</td>
<td>중합물류대행</td>
<td>100.0</td>
</tr>
<tr>
<td></td>
<td>삼성미디슨㈜</td>
<td>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td>
<td>68.5</td>
</tr>
<tr>
<td></td>
<td>주미래로시스템</td>
<td>반도체 S/W</td>
<td>99.9</td>
</tr>
<tr>
<td></td>
<td>쿠도우민시스템(*2)</td>
<td>DP 부품 생산</td>
<td>48.2</td>
</tr>
<tr>
<td></td>
<td>지에프㈜</td>
<td>DP 부품 생산</td>
<td>72.7</td>
</tr>
<tr>
<td></td>
<td>쿠하만인터내셔널코리아</td>
<td>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td>
<td>100.0</td>
</tr>
<tr>
<td></td>
<td>SVIC 21호 신기술투자조합</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r>
<td></td>
<td>SVIC 22호 신기술투자조합</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r>
<td></td>
<td>SVIC 26호 신기술투자조합</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r>
<td></td>
<td>SVIC 27호 신기술투자조합</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r>
<td></td>
<td>SVIC 28호 신기술투자조합</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r>
<td></td>
<td>SVIC 29호 신기술투자조합</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r>
<td></td>
<td>SVIC 32호 신기술투자조합</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r>
<td></td>
<td>SVIC 33호 신기술투자조합</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r>
<td></td>
<td>SVIC 37호 신기술투자조합</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r>
<td></td>
<td>SVIC 40호 신기술투자조합</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r>
<td></td>
<td>SVIC 42호 신기술투자조합</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r>
<td></td>
<td>SVIC 43호 신기술투자조합</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r>
<td></td>
<td>SVIC 45호 신기술투자조합</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r>
<td></td>
<td>SVIC 48호 신기술투자조합</td>
<td>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td>
<td>99.0</td>
</tr>
</tbody>
</table>

(※)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1) 당기

<table>
<thead>
<tr>
<th>기업명(*)</th>
<th>자산</th>
<th>부채</th>
<th>매출액</th>
<th>당기순이익(손실)</th>
</tr>
</thead>
<tbody>
<tr>
<td>삼성디스플레이㈜</td>
<td>46,543,974</td>
<td>6,421,516</td>
<td>27,088,475</td>
<td>407,791</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SEA)</td>
<td>34,704,039</td>
<td>13,992,397</td>
<td>33,859,423</td>
<td>1,127,719</td>
</tr>
<tr>
<td>Harman과 그 종속기업(*2)</td>
<td>15,609,084</td>
<td>5,791,272</td>
<td>10,075,626</td>
<td>104,459</td>
</tr>
<tr>
<td>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SCIC)</td>
<td>14,637,222</td>
<td>11,701,871</td>
<td>3,098,948</td>
<td>581,115</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INGUYEN Co., Ltd.(SEVT)</td>
<td>13,847,934</td>
<td>2,075,180</td>
<td>32,381,993</td>
<td>2,305,089</td>
</tr>
<tr>
<td>Samsung (CHINA) Semiconductor Co., Ltd.(SCS)</td>
<td>12,370,070</td>
<td>2,678,742</td>
<td>5,445,396</td>
<td>1,127,719</td>
</tr>
<tr>
<td>Samsung Asia Private Ltd.(SAPL)</td>
<td>11,194,190</td>
<td>3,795,273</td>
<td>16,473,214</td>
<td>211,312</td>
</tr>
<tr>
<td>Samsung Display Vietnam Co., Ltd.(SDV)</td>
<td>9,137,262</td>
<td>579,618</td>
<td>1,572,146</td>
<td>1,265,359</td>
</tr>
<tr>
<td>Samsung Electronic da Amazonia Ltda.(SEDA)</td>
<td>7,058,719</td>
<td>1,594,907</td>
<td>7,252,673</td>
<td>887,298</td>
</tr>
<tr>
<td>Samsung India Electronics Private Ltd.(SIEL)</td>
<td>7,042,872</td>
<td>3,588,241</td>
<td>12,902,906</td>
<td>448,678</td>
</tr>
<tr>
<td>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SAS)</td>
<td>6,437,865</td>
<td>556,765</td>
<td>3,897,162</td>
<td>571,391</td>
</tr>
<tr>
<td>Shanghai Samsung Semiconductor Co., Ltd.(SSS)</td>
<td>5,880,616</td>
<td>4,446,885</td>
<td>26,067,175</td>
<td>265,801</td>
</tr>
<tr>
<td>Samsung (UK) Ltd.(SEUK)</td>
<td>2,912,731</td>
<td>450,833</td>
<td>3,921,248</td>
<td>144,087</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HCMC CE Complex Co., Ltd.(SEHC)</td>
<td>2,644,358</td>
<td>450,833</td>
<td>3,921,248</td>
<td>144,087</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GmbH(SEG)</td>
<td>2,518,269</td>
<td>2,199,561</td>
<td>5,597,323</td>
<td>4,729</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Hungarian Private Co. Ltd.(SEH)</td>
<td>2,109,654</td>
<td>416,160</td>
<td>2,915,812</td>
<td>150,122</td>
</tr>
<tr>
<td>Samsung SemiConductor Xian Co., Ltd.(SSCX)</td>
<td>2,091,092</td>
<td>1,954,875</td>
<td>4,283,163</td>
<td>53,160</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Europe Logistics B.V.(SELS)</td>
<td>2,027,213</td>
<td>1,891,221</td>
<td>12,540,817</td>
<td>6,531</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SEBN)</td>
<td>1,914,864</td>
<td>673,887</td>
<td>2,246,357</td>
<td>39,175</td>
</tr>
<tr>
<td>Samsung Suzhou LCD Co., Ltd.(SSL)</td>
<td>1,808,262</td>
<td>625,541</td>
<td>1,415,505</td>
<td>(4,414)</td>
</tr>
<tr>
<td>Samsung Display Dongguan Co., Ltd.(SDD)</td>
<td>1,795,077</td>
<td>444,552</td>
<td>3,995,696</td>
<td>158,122</td>
</tr>
</tbody>
</table>

(1)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각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2) 전기

<table>
<thead>
<tr>
<th>기업명(*)</th>
<th>자산</th>
<th>부채</th>
<th>매출액</th>
<th>당기순이익(손실)</th>
</tr>
</thead>
<tbody>
<tr>
<td>삼성디스플레이㈜</td>
<td>47,162,963</td>
<td>7,509,766</td>
<td>28,653,512</td>
<td>1,263,050</td>
</tr>
</tbody>
</table>
(1)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head>
<tr>
<th>기업명</th>
<th>위탁처 (부가재무정보)</th>
<th>감가사정금액</th>
<th>감가사정비</th>
<th>자산총계</th>
<th>부채총계</th>
<th>주주자산총계</th>
<th>적립금</th>
<th>전기</th>
<th>당기</th>
</tr>
</thead>
<tbody>
<tr>
<td>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SEA)</td>
<td></td>
<td></td>
<td></td>
<td>30,681,097</td>
<td>11,862,223</td>
<td>31,171,751</td>
<td></td>
<td></td>
<td>870,814</td>
</tr>
<tr>
<td>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SCIC)</td>
<td></td>
<td></td>
<td></td>
<td>16,090,629</td>
<td>13,858,532</td>
<td>3,277,050</td>
<td></td>
<td></td>
<td>127,448</td>
</tr>
<tr>
<td>Samsung, Inc.(SNI)</td>
<td></td>
<td></td>
<td></td>
<td>10,510,100</td>
<td>12,000,000</td>
<td>82,550</td>
<td></td>
<td></td>
<td>240,000</td>
</tr>
<tr>
<td>Harman과 그 종속기업(2)</td>
<td></td>
<td></td>
<td></td>
<td>11,360,811</td>
<td>2,209,962</td>
<td>28,340,939</td>
<td></td>
<td></td>
<td>2,047,014</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Vietnam Co., Ltd.(SEV)</td>
<td>12,000,000</td>
<td>1,607,991</td>
<td>21,430,638</td>
<td></td>
<td></td>
<td>21,430,638</td>
<td></td>
<td></td>
<td>1,783,410</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INGUYEN Co., Ltd.(SEVT)</td>
<td></td>
<td></td>
<td></td>
<td>10,254,900</td>
<td>1,920,000</td>
<td>4,517,286</td>
<td></td>
<td></td>
<td>1,489,906</td>
</tr>
<tr>
<td>Samsung Semiconductor, Inc.(SSI)</td>
<td></td>
<td></td>
<td></td>
<td>9,306,621</td>
<td>4,288,544</td>
<td>29,592,773</td>
<td></td>
<td></td>
<td>62,872</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 Cooperatief U.A.(SEEH)</td>
<td></td>
<td></td>
<td></td>
<td>8,586,022</td>
<td>6,388,302</td>
<td>-</td>
<td></td>
<td></td>
<td>9,439</td>
</tr>
<tr>
<td>Samsung Display Vietnam Co., Ltd.(SDV)</td>
<td></td>
<td></td>
<td></td>
<td>8,222,472</td>
<td>6,195,635</td>
<td>19,860,892</td>
<td></td>
<td></td>
<td>1,003,889</td>
</tr>
<tr>
<td>Samsung Asia Private Ltd.(SAPL)</td>
<td></td>
<td></td>
<td></td>
<td>7,630,154</td>
<td>592,916</td>
<td>1,665,436</td>
<td></td>
<td></td>
<td>1,111,559</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Huizhou Co., Ltd.(SEHZ)</td>
<td></td>
<td></td>
<td></td>
<td>6,539,392</td>
<td>586,349</td>
<td>9,780,357</td>
<td></td>
<td></td>
<td>532,767</td>
</tr>
<tr>
<td>Samsung India Electronics Private Ltd.(SIEL)</td>
<td></td>
<td></td>
<td></td>
<td>6,410,825</td>
<td>3,438,807</td>
<td>11,045,500</td>
<td></td>
<td></td>
<td>309,632</td>
</tr>
<tr>
<td>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 Ltda.(SEDG)</td>
<td></td>
<td></td>
<td></td>
<td>6,207,458</td>
<td>1,610,607</td>
<td>6,978,065</td>
<td></td>
<td></td>
<td>778,124</td>
</tr>
<tr>
<td>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SAS)</td>
<td></td>
<td></td>
<td></td>
<td>5,642,117</td>
<td>511,596</td>
<td>3,643,739</td>
<td></td>
<td></td>
<td>434,766</td>
</tr>
<tr>
<td>Shanghai Samsung Semiconductor Co., Ltd.(SSS)</td>
<td></td>
<td></td>
<td></td>
<td>5,400,549</td>
<td>4,227,922</td>
<td>30,379,218</td>
<td></td>
<td></td>
<td>286,956</td>
</tr>
<tr>
<td>Thai Samsung Electronics Co., Ltd.(TSE)</td>
<td></td>
<td></td>
<td></td>
<td>2,485,999</td>
<td>397,248</td>
<td>3,841,441</td>
<td></td>
<td></td>
<td>171,407</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UK) Ltd.(SEUK)</td>
<td></td>
<td></td>
<td></td>
<td>2,203,583</td>
<td>1,588,007</td>
<td>4,718,920</td>
<td></td>
<td></td>
<td>103,488</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GmbH(SEG)</td>
<td></td>
<td></td>
<td></td>
<td>2,202,610</td>
<td>2,144,728</td>
<td>6,081,200</td>
<td></td>
<td></td>
<td>(3,490)</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HCMC CE Complex Co., Ltd.(SEHC)</td>
<td></td>
<td></td>
<td></td>
<td>2,042,669</td>
<td>1,174,936</td>
<td>4,223,111</td>
<td></td>
<td></td>
<td>334,803</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Europe Logistics B.V.(SELS)</td>
<td></td>
<td></td>
<td></td>
<td>1,904,358</td>
<td>1,778,710</td>
<td>12,797,660</td>
<td></td>
<td></td>
<td>19,347</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Hungarian Private Co. Ltd.(SEH)</td>
<td></td>
<td></td>
<td></td>
<td>1,894,922</td>
<td>280,245</td>
<td>2,551,008</td>
<td></td>
<td></td>
<td>90,956</td>
</tr>
<tr>
<td>Samsung Suzhou LCD Co., Ltd.(SSL)</td>
<td></td>
<td></td>
<td></td>
<td>1,845,330</td>
<td>679,207</td>
<td>1,601,925</td>
<td></td>
<td></td>
<td>31,743</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France S.A.(SEF)</td>
<td></td>
<td></td>
<td></td>
<td>1,761,117</td>
<td>1,412,971</td>
<td>3,746,624</td>
<td></td>
<td></td>
<td>59,956</td>
</tr>
<tr>
<td>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SEBN)</td>
<td></td>
<td></td>
<td></td>
<td>1,673,470</td>
<td>552,994</td>
<td>2,118,897</td>
<td></td>
<td></td>
<td>29,536</td>
</tr>
</tbody>
</table>

(*1)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각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라.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1)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head>
<tr>
<th>지역</th>
<th>기업명</th>
<th>변동 내역</th>
</tr>
</thead>
<tbody>
<tr>
<td>미주</td>
<td>Harman Investment Group, LLC</td>
<td>청산</td>
</tr>
<tr>
<td></td>
<td>Red Bend Software Inc.</td>
<td>합병 (*1)</td>
</tr>
<tr>
<td>유럽/ CIS</td>
<td>Samsung France Research Center SARL(SFRC)</td>
<td>청산</td>
</tr>
<tr>
<td></td>
<td>Innoetics E.P.E.</td>
<td>합병 (*2)</td>
</tr>
<tr>
<td></td>
<td>Duran Audio B.V.</td>
<td>합병 (*3)</td>
</tr>
<tr>
<td></td>
<td>Harman International SNC</td>
<td>합병 (*4)</td>
</tr>
<tr>
<td></td>
<td>Harman Professional France SAS</td>
<td>합병 (*5)</td>
</tr>
<tr>
<td>중동/ 아프리카</td>
<td>Broadsense Ltd.</td>
<td>청산</td>
</tr>
<tr>
<td></td>
<td>iOnRoad Ltd</td>
<td>청산</td>
</tr>
<tr>
<td></td>
<td>iOnRoad Technologies Ltd</td>
<td>합병 (*6)</td>
</tr>
<tr>
<td></td>
<td>Towersec Ltd.</td>
<td>합병 (*7)</td>
</tr>
</tbody>
</table>
(2)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head>
<tr>
<th>지역</th>
<th>기업명</th>
<th>변동내역</th>
</tr>
</thead>
<tbody>
<tr>
<td>아시아(중국제외)</td>
<td>Harman Connected Services Japan Co., Ltd.</td>
<td>합병(*8)</td>
</tr>
<tr>
<td></td>
<td>Red Bend Software Japan Co., Ltd.</td>
<td>합병(*9)</td>
</tr>
<tr>
<td></td>
<td>Studer Japan Ltd.</td>
<td>합병(*10)</td>
</tr>
<tr>
<td></td>
<td>Harman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td>
<td>합병(*11)</td>
</tr>
<tr>
<td></td>
<td>AMX Products And Solutions Private Limited</td>
<td>합병(*12)</td>
</tr>
<tr>
<td></td>
<td>Samsung Medison India Private Ltd.(SMIN)</td>
<td>청산</td>
</tr>
<tr>
<td>중국</td>
<td>Samsung Electronics (Beijing) Service Company Limited(SBSC)</td>
<td>합병(*13)</td>
</tr>
<tr>
<td></td>
<td>Harman Connected Services Solutions (Beijing) Co., Ltd.</td>
<td>청산</td>
</tr>
<tr>
<td>국내</td>
<td>레드벤드소프트웨어코리아㈜</td>
<td>청산</td>
</tr>
</tbody>
</table>

(*) 1) 종속기업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는 종속기업 Red Bend Software Inc.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2) 종속기업 Samsung Electronics Greece S.M.S.A(SEGR)는 종속기업 Innoetics E.P.E.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3) 종속기업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Manufacturing Kft는 종속기업 Duran Audio B.V.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4) 종속기업 Harman France SNC는 종속기업 Harman International SNC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5) 종속기업 Harman France SNC는 종속기업 Harman Professional France SAS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6) 종속기업 Red Bend Ltd.는 종속기업 iOnRoad Technologies Ltd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7) 종속기업 Red Bend Ltd.는 종속기업 Towersec Ltd.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8) 종속기업 Harman International Japan Co., Ltd.는 종속기업 Harman Connected Services Japan Co., Ltd.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9) 종속기업 Harman International Japan Co., Ltd.는 종속기업 Red Bend Software Japan Co., Ltd.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10) 종속기업 Harman International Japan Co., Ltd.는 종속기업 Studer Japan Ltd.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12) 종속기업 Harman International (India) Private Limited는 종속기업 AMX Products And Solutions Private Limited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13) 종속기업 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SCIC)는 종속기업 Samsung Electronics (Beijing) Service Company Limited(SBSC)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가.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연결회사는 2019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으며,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종전 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와 관련하여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현재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는 각각 2,774,982백만원, 2,344,75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 2018년 12월 31일의 금융리스부채</td>
<td>61,189</td>
</tr>
<tr>
<td>2. 2019년 1월 1일의 운용리스 약정 조정내역</td>
<td>2,344,756</td>
</tr>
<tr>
<td>3. 2019년 1월 1일의 리스부채</td>
<td>2,405,945</td>
</tr>
</tbody>
</table>

(단위 : 백만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적성상환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근무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순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가 과세당국에 의해 인정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주요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개정된 사업의 정의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정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연결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
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봉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전설로 판단하여 피투자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피투자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비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나.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자본거래, 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 해당액과 차이의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도 자본에 반영됩니다.

다.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시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판매격, 공동배분격 또는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 최초 인식 시 장부가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손익 또는 자본으로 재분류됩니다.

라. 비지배지분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회사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회사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마.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
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 손실과 부채로 인식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가능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바.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KR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외화거래와 보고기간종료일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의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과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다.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1)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중료일의 마감환율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2) 순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균환율이 거래일의 전반적인 누적환율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3) 위 (1), (2)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가. 분류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최초적용일 2018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측정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에 대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
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모두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2)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제거되는 시점에 자본에 누적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 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라.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의 소구권 등으로 얻려한 금융자산의 손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였고,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채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슴
다.

마.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제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리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유휴생산설비원가나 폐기비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의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제품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계상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연결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토지는 상각되지 않으며, 자본화차입금이자 및 장기건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원가는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됩니다.

각 자산별로 연결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대표추정내용연수</th>
</tr>
</thead>
</table>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무형자산
영업권은 취득시점에 취득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사업 등의 순식별가능자산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며 종속기업의 사업취득과 관련된 건은 무형자산으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지분 취득과 관련한 건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 및 특정 상표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원권의 시장가치 하락 등 손상 징후 발견 시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상각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무형자산 등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각 자산별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대표추정내용연수</th>
</tr>
</thead>
<tbody>
<tr>
<td>개발비</td>
<td>2년</td>
</tr>
<tr>
<td>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무형자산</td>
<td>3년 ~ 25년</td>
</tr>
</tbody>
</table>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
습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급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급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영업권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순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3 금융부채

가. 분류 및 측정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이러한 금융부채는 주석 2.6 금융자산의 내용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3)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이후에 이러한 계약의 발행자는 해당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4)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약정의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해당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5) 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이러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4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2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5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 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 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연결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제가치로 측정하며, 현제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할 수있습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제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의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17 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결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상장이거나 비상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금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나 계약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연결회사는 더 이상의 미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입니다. 선급 기여금은 초과 기여금으로 인해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제가치와 사외제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과 소적립액(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제가치는 급여가
지급일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9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연결회사의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재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재정실적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중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점행가능한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0 화생상품

연결회사는 화생상품의 제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제고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자본금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는 종속기업이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연결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연결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3 수익인식

수익은 주로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판매상각금 및 가격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Incoterms Group C 조건(무역조건 CIF 등)에 따라 다양한 제품 및 상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이후 매도인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운송서비스(보험 포함)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는 조달청을 통해 수주되는 시스템에어컨 도급공사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설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가치를 높이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설치용역의 경우 용역 수행 경과에 따른 결과물을 고객이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껏감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의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4)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등을 사용합니다.

2.24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최초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짜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여,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증분자산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
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장기부채'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가결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자산 리스(기초자산 US$ 5,000 이하)의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2019년 1월 1일 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기 전의 회계정책과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2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과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고, 정부보조금 관련 이연수익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동부채증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회계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동부채증가액과 가중평균 잡제적 회계증권증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잡제적 회계증권은 회계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회계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7 보고부문

보고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부문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최고영업의사 결정자는 부문에 배부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8 연결재무제표의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0년 1월 30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 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계약에 따른 대가에서 특정 매출장려활동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및 계약에 기초하여 매출차감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수익은 추정된 매출차감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 판매보증충당부채

연결회사는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산정치를 기준으로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회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을 기초로 다양한 평가기법 및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때에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 종료일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마. 리스

연결회사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 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 당히 확실한지 판단을 변경합니다.

바.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 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장부금액에 영향 을 줄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매년 말 우량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 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정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의 주정 현금 유출액의 현저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순확정 급여부채(자산)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 영업권 및 내용연수로 인한 무형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년 영업권 및 내용연수로 인한 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 또는 자산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아.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 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 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 여부를 검토하며, 과 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에는 불확 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에 다음 방법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가능한 결과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금액
(2) 기댓값: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
※ 상세한 주석사항은 2월 2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재무상태표(별도 대차대조표)

<table>
<thead>
<tr>
<th>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th>
<th>제 51 기 2019.12.31 현재</th>
<th>제 50 기 2018.12.31 현재</th>
</tr>
</thead>
<tbody>
<tr>
<td>자산</td>
<td></td>
<td></td>
</tr>
<tr>
<td>유동자산</td>
<td>72,659,080</td>
<td>80,039,455</td>
</tr>
<tr>
<td>현금및현금성자산</td>
<td>2,081,917</td>
<td>2,607,957</td>
</tr>
<tr>
<td>단기금융상품</td>
<td>26,501,392</td>
<td>34,113,871</td>
</tr>
<tr>
<td>매출채권</td>
<td>26,255,438</td>
<td>24,933,267</td>
</tr>
<tr>
<td>미수금</td>
<td>2,406,795</td>
<td>1,515,079</td>
</tr>
<tr>
<td>선급금</td>
<td>908,288</td>
<td>807,262</td>
</tr>
<tr>
<td>선급비용</td>
<td>813,651</td>
<td>2,230,628</td>
</tr>
<tr>
<td>재고자산</td>
<td>12,201,712</td>
<td>12,440,951</td>
</tr>
<tr>
<td>기타유동자산</td>
<td>1,489,887</td>
<td>1,390,440</td>
</tr>
<tr>
<td>비유동자산</td>
<td>143,521,840</td>
<td>138,981,902</td>
</tr>
<tr>
<td>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td>
<td></td>
<td></td>
</tr>
<tr>
<td>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td>
<td>1,206,080</td>
<td>1,098,565</td>
</tr>
<tr>
<td>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td>
<td>3,181</td>
<td>7,413</td>
</tr>
<tr>
<td>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td>
<td>56,571,252</td>
<td>55,959,745</td>
</tr>
<tr>
<td>유형자산</td>
<td>74,090,275</td>
<td>70,602,493</td>
</tr>
<tr>
<td>무형자산</td>
<td>8,008,653</td>
<td>2,901,476</td>
</tr>
<tr>
<td>순확정급여자산</td>
<td>486,855</td>
<td>562,356</td>
</tr>
<tr>
<td>이연법인세자산</td>
<td>547,176</td>
<td>654,456</td>
</tr>
<tr>
<td>기타비유동자산</td>
<td>2,608,368</td>
<td>7,195,398</td>
</tr>
<tr>
<td>자산총계</td>
<td>216,180,920</td>
<td>219,021,357</td>
</tr>
<tr>
<td>부채</td>
<td></td>
<td></td>
</tr>
<tr>
<td>유동부채</td>
<td>36,237,164</td>
<td>43,145,053</td>
</tr>
<tr>
<td>매입채무</td>
<td>7,547,273</td>
<td>7,315,631</td>
</tr>
<tr>
<td>단기차입금</td>
<td>10,228,216</td>
<td>10,353,873</td>
</tr>
<tr>
<td>미지급금</td>
<td>9,142,890</td>
<td>8,385,752</td>
</tr>
<tr>
<td>부채항목</td>
<td>제 51 기 2019.12.31</td>
<td>제 50 기 2018.12.31</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선수금</td>
<td>355,562</td>
<td>214,615</td>
</tr>
<tr>
<td>예수금</td>
<td>383,450</td>
<td>572,702</td>
</tr>
<tr>
<td>미지급비용</td>
<td>5,359,291</td>
<td>6,129,837</td>
</tr>
<tr>
<td>당기법인세부채</td>
<td>788,846</td>
<td>7,925,887</td>
</tr>
<tr>
<td>유동성장기부채</td>
<td>153,942</td>
<td>5,440</td>
</tr>
<tr>
<td>총당부채</td>
<td>2,042,039</td>
<td>2,135,314</td>
</tr>
<tr>
<td>기타유동부채</td>
<td>235,655</td>
<td>106,002</td>
</tr>
<tr>
<td>비유동부채</td>
<td>2,073,509</td>
<td>2,888,179</td>
</tr>
<tr>
<td>사채</td>
<td>39,520</td>
<td>43,516</td>
</tr>
<tr>
<td>장기차입금</td>
<td>174,651</td>
<td></td>
</tr>
<tr>
<td>장기미지급금</td>
<td>1,574,535</td>
<td>2,472,416</td>
</tr>
<tr>
<td>장기충당부채</td>
<td>283,508</td>
<td>372,217</td>
</tr>
<tr>
<td>기타비유동부채</td>
<td>1,295</td>
<td>30</td>
</tr>
<tr>
<td>부채총계</td>
<td>38,310,673</td>
<td>46,033,232</td>
</tr>
<tr>
<td>자본</td>
<td></td>
<td></td>
</tr>
<tr>
<td>자본금</td>
<td>897,514</td>
<td>897,514</td>
</tr>
<tr>
<td>우선주자본금</td>
<td>119,467</td>
<td>119,467</td>
</tr>
<tr>
<td>보통주자본금</td>
<td>778,047</td>
<td>778,047</td>
</tr>
<tr>
<td>주식발행초과금</td>
<td>4,403,893</td>
<td>4,403,893</td>
</tr>
<tr>
<td>이익잉여금(결손금)</td>
<td>172,288,326</td>
<td>166,555,532</td>
</tr>
<tr>
<td>기타자본항목</td>
<td>280,514</td>
<td>1,131,186</td>
</tr>
<tr>
<td>자본총계</td>
<td>177,870,247</td>
<td>172,988,125</td>
</tr>
<tr>
<td>자본과부채총계</td>
<td>216,180,920</td>
<td>219,021,357</td>
</tr>
</tbody>
</table>

- 별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 51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제 50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단위 : 백만원)

<table>
<thead>
<tr>
<th>손익항목</th>
<th>제 51 기</th>
<th>제 50 기</th>
</tr>
</thead>
<tbody>
<tr>
<td>수익(매출액)</td>
<td>154,772,859</td>
<td>170,381,870</td>
</tr>
<tr>
<td>매출원가</td>
<td>113,618,444</td>
<td>101,666,506</td>
</tr>
<tr>
<td>매출총이익</td>
<td>41,154,415</td>
<td>68,715,364</td>
</tr>
<tr>
<td>판매비와관리비</td>
<td>27,039,348</td>
<td>25,015,913</td>
</tr>
<tr>
<td>영업이익(손실)</td>
<td>14,115,067</td>
<td>43,699,451</td>
</tr>
<tr>
<td>기타수익</td>
<td>5,223,302</td>
<td>972,145</td>
</tr>
<tr>
<td>기타비용</td>
<td>678,565</td>
<td>504,562</td>
</tr>
<tr>
<td>금융수익</td>
<td>4,281,534</td>
<td>3,737,494</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금융비용</td>
<td>3,908,869</td>
<td>3,505,673</td>
</tr>
<tr>
<td>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td>
<td>19,032,469</td>
<td>44,398,855</td>
</tr>
<tr>
<td>법인세비용</td>
<td>3,679,146</td>
<td>11,583,728</td>
</tr>
<tr>
<td>계속영업이익(손실)</td>
<td>15,353,323</td>
<td>32,815,127</td>
</tr>
<tr>
<td>당기순이익(손실)</td>
<td>15,353,323</td>
<td>32,815,127</td>
</tr>
<tr>
<td>주당이익</td>
<td></td>
<td></td>
</tr>
<tr>
<td>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td>
<td>2,260</td>
<td>4,830</td>
</tr>
<tr>
<td>회계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td>
<td>2,260</td>
<td>4,830</td>
</tr>
</tbody>
</table>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51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제 50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단위 : 백만원)

<table>
<thead>
<tr>
<th></th>
<th>제 51 기</th>
<th>제 50 기</th>
</tr>
</thead>
<tbody>
<tr>
<td>당기순이익(손실)</td>
<td>15,353,323</td>
<td>32,815,127</td>
</tr>
<tr>
<td>기타포괄손익</td>
<td>(851,958)</td>
<td>(378,321)</td>
</tr>
<tr>
<td>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td>
<td>(851,958)</td>
<td>(378,321)</td>
</tr>
<tr>
<td>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td>
<td>73,199</td>
<td>(88,340)</td>
</tr>
<tr>
<td>순확정급여자산 재측정요소</td>
<td>(925,157)</td>
<td>(289,981)</td>
</tr>
<tr>
<td>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td>
<td></td>
<td></td>
</tr>
<tr>
<td>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td>
<td></td>
<td></td>
</tr>
<tr>
<td>총포괄손익</td>
<td>14,501,365</td>
<td>32,436,806</td>
</tr>
</tbody>
</table>

- 별도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51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제 50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단위 : 백만원)

<table>
<thead>
<tr>
<th>자본금</th>
<th>주식발행초과금</th>
<th>이익잉여금</th>
<th>기타자본항목</th>
<th>자본 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자본</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18.01.01 (전기초)</td>
<td>897,514</td>
<td>4,403,893</td>
<td>150,928,724</td>
<td>151,569,775</td>
</tr>
<tr>
<td>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td>
<td></td>
<td>61,021</td>
<td>(61,021)</td>
<td></td>
</tr>
<tr>
<td>수정후 기초자본</td>
<td>897,514</td>
<td>4,403,893</td>
<td>150,928,724</td>
<td>151,569,775</td>
</tr>
<tr>
<td>당기순이익(손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table>
<thead>
<tr>
<th>과목</th>
<th>제 51 기</th>
<th>제 50 기</th>
</tr>
</thead>
<tbody>
<tr>
<td>I. 미처분이익잉여금</td>
<td>8,138,252</td>
<td>18,556,368</td>
</tr>
<tr>
<td>1. 전기이월이익잉여금</td>
<td>30</td>
<td>30</td>
</tr>
<tr>
<td>2.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등</td>
<td>(1,286)</td>
<td>58,324</td>
</tr>
<tr>
<td>3. 분기배당액</td>
<td>(7,213,815)</td>
<td>(7,213,815)</td>
</tr>
<tr>
<td>제51기 - 주당배당금(률): 1,062원(1062%)</td>
<td>(7,213,815)</td>
<td>(7,213,815)</td>
</tr>
<tr>
<td>제50기 - 주당배당금(률): 1,062원(1062%)</td>
<td></td>
<td></td>
</tr>
<tr>
<td>4. 자기주식 소각</td>
<td>-</td>
<td>(7,103,298)</td>
</tr>
<tr>
<td>5. 당기순이익</td>
<td>15,353,323</td>
<td>32,815,127</td>
</tr>
<tr>
<td>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td>
<td>-</td>
<td>-</td>
</tr>
<tr>
<td>III. 이익잉여금처분액</td>
<td>8,138,222</td>
<td>18,556,338</td>
</tr>
<tr>
<td>1. 기업합리화적립금</td>
<td>2,500,000</td>
<td>5,000,000</td>
</tr>
</tbody>
</table>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분확정일: 2019년 3월 20일).

- 별도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51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제 50 기 2018.01.01 부터 2018.12.31 까지

(단위: 백만원)

<table>
<thead>
<tr>
<th></th>
<th>제 51 기</th>
<th>제 50 기</th>
</tr>
</thead>
<tbody>
<tr>
<td>영업활동 현금흐름</td>
<td>22,796,257</td>
<td>44,341,217</td>
</tr>
<tr>
<td>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td>
<td>28,344,706</td>
<td>53,596,311</td>
</tr>
<tr>
<td>당기순이익</td>
<td>15,353,323</td>
<td>32,815,127</td>
</tr>
<tr>
<td>조정</td>
<td>16,911,222</td>
<td>27,095,149</td>
</tr>
<tr>
<td>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td>
<td>(3,919,839)</td>
<td>(6,313,965)</td>
</tr>
<tr>
<td>이자의 수취</td>
<td>673,363</td>
<td>459,074</td>
</tr>
<tr>
<td>이자의 지급</td>
<td>(306,633)</td>
<td>(343,270)</td>
</tr>
<tr>
<td>배당금 수입</td>
<td>4,625,181</td>
<td>779,567</td>
</tr>
<tr>
<td>법인세 납부액</td>
<td>(10,540,360)</td>
<td>(10,150,465)</td>
</tr>
<tr>
<td>투자활동 현금흐름</td>
<td>(13,537,171)</td>
<td>(31,678,548)</td>
</tr>
<tr>
<td>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증가)</td>
<td>6,212,479</td>
<td>(7,203,807)</td>
</tr>
<tr>
<td>장기금융상품의 처분</td>
<td>1,400,000</td>
<td></td>
</tr>
<tr>
<td>장기금융상품의 취득</td>
<td></td>
<td>(1,860,000)</td>
</tr>
<tr>
<td>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td>
<td></td>
<td></td>
</tr>
<tr>
<td>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td>
<td></td>
<td></td>
</tr>
<tr>
<td>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td>
<td>1,239</td>
<td>7,345</td>
</tr>
<tr>
<td>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td>
<td>(6,701)</td>
<td>(204,055)</td>
</tr>
<tr>
<td>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td>
<td>7,334</td>
<td>7,421</td>
</tr>
<tr>
<td>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td>
<td></td>
<td>(1,776)</td>
</tr>
<tr>
<td>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처분</td>
<td>58,677</td>
<td>25,846</td>
</tr>
<tr>
<td>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취득</td>
<td>(925,139)</td>
<td>(520,660)</td>
</tr>
</tbody>
</table>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57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69년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1975년에 대한민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은 CE부문, IM부문, DS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은 디지털 TV, 모니터,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IM(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 communications) 부문은 휴대폰, 통신시스템, 컴퓨터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S(Device Solutions) 부문은 메모리 반도체, Foundry, System LSI 등의 반도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1. 일반적 사항: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69년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1975년에 대한민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은 CE부문, IM부문, DS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은 디지털 TV, 모니터,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IM(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 communications) 부문은 휴대폰, 통신시스템, 컴퓨터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S(Device Solutions) 부문은 메모리 반도체, Foundry, System LSI 등의 반도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처리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가.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회사는 2019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으며,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는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종전 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와 관련하여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현재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는 각각 438,923백만원, 249,03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 2018년 12월 31일의 금융리스부채</td>
<td>-</td>
</tr>
<tr>
<td>2. 2019년 1월 1일의 운용리스 약정 조정내역</td>
<td>249,034</td>
</tr>
<tr>
<td>- 2018년 12월 31일의 운용리스 약정</td>
<td>285,567</td>
</tr>
<tr>
<td>- 2019년 1월 1일의 운용리스 약정 할인금액</td>
<td>269,032</td>
</tr>
<tr>
<td>(조정)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 예외규정 적용</td>
<td>(19,998)</td>
</tr>
<tr>
<td>3. 2019년 1월 1일의 리스부채</td>
<td>249,034</td>
</tr>
</tbody>
</table>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환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가가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
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가 과세당국에 의해 인정되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납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도래하지 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주요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개정된 사업의 정의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자배회사인 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 및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등 240개의 종속기업과 삼성전기㈜ 등 41개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장추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순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2.4 외화환산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KR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외화거래와 보고기간종료일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의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과나 환매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가. 분류

회사는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최초적용일 2018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 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
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모두를 통한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비용'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2)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제거되는 시점에 자본에 누적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라.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얻어서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얻어서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얻어서도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얻어서도 채무불이행을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채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유휴생산설비 원가나 폐기비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제품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징, 진부화 및 사정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 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강각 됩니다. 토지는 강각되지 않으며, 자본화차입금이자를 포함한 장기건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원가는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강각됩니다.

각 자산별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대표추정내용연수</th>
</tr>
</thead>
<tbody>
<tr>
<td>건물 및 구축물</td>
<td>15, 30 년</td>
</tr>
<tr>
<td>기 계 장 치</td>
<td>5 년</td>
</tr>
<tr>
<td>기 타</td>
<td>5 년</td>
</tr>
</tbody>
</table>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기능력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무형자산
영업권은 취득시점에 취득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사업 등의 순식별가능자산에 대한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며 종속기업의 사업취득과 관련된 건은 무형자산으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지분 취득과 관련한 건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 및 특정 상표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강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원권의 시장가치 하락 등 손상 징후 발견 시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손
상을 반영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무형자산 등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각 자산별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대표추정내용연수</th>
</tr>
</thead>
<tbody>
<tr>
<td>개발비</td>
<td>2년</td>
</tr>
<tr>
<td>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무형자산</td>
<td>5년 ~ 10년</td>
</tr>
</tbody>
</table>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 매 보고기간중료일에 장부금액이 회수능가치가 없을 수도 있음에 따라 전환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추정하여 한정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영업권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중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3 금융부채

가. 분류 및 측정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포상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이러한 금융부채는 주석 2.6 금융자산의 내용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3)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이후에 이러한 계약의 발행자는 해당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등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4)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약정의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해당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등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5) 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이러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얻어모합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4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2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5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순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중토입이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17 종업원급여

회사는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남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회사는 상장되거나 비상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금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나 계약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회사는 더 이상의 미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종업원의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선급 기여금은 조과 기여금으로 인해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제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중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과적립액(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회계세력의 판단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금여가 지급될 통로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9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회사의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중료일 현재 재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재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범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며 손익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0 파생상품

회사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고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 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배당금

배당금은 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자본금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는 종속기업이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기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3 수익인식

수익은 주로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판매장려금 및 가격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Incoterms Group C 조건(무역조건 CIF 등)에 따라 다양한 제품 및 상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이후 매도인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운송서비스(보험 포함)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조달청을 통해 수주되는 시스템에어컨 도급공사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설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가치를 높이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설치용역의 경우 용역 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물을 고객이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 변동대가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4)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2.24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는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최초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리스입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입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1) 리스입자로서의 회계처리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 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짜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 가치 측정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가 있어 소정의 변동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식이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장기부채'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 이래 12개월 이하)와 소액자산 리스(기초자산 US$ 5,000 이하)의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2019년 1월 1일 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기 전의 회계정책과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2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고, 정부보조금 관련 이연수익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회계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회계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회계증권은 회계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회계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7 보고부문

보고부문은 최고경영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부문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의사결정자는 부문에 배속된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8 재무제표의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 1월 30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익인식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하여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는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계약에 따른 대가에서 특정 매출장려활동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및 계약에기초하여 매출차감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익은 추정된 매출차감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 판매보증충당부채

회사는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보고 기간종료일 미래에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회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보고기준시점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을 기초로 다양한 평가기법 및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때에 채무불이행위험이나 대인수익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 기간종료일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마. 리스

회사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음)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바.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말 우량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미치기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

회사는 매년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 또는 자산의 회수가능금융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아.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기간 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
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촬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 여부를 검토하며,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에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에 다음 방법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가능한 결과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금액
(2) 기댓값: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

※ 상세한 주석사항은 2월 2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table>
<thead>
<tr>
<th>후보자성명</th>
<th>생년월일</th>
<th>사외이사 후보자여부</th>
<th>최대주주와의 관계</th>
<th>추천인</th>
</tr>
</thead>
<tbody>
<tr>
<td>한종희</td>
<td>62.3.15</td>
<td>사내이사</td>
<td>없음</td>
<td>이사회</td>
</tr>
</tbody>
</table>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table>
<thead>
<tr>
<th>후보자성명</th>
<th>주된직업</th>
<th>세부경력</th>
<th>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th>
</tr>
</thead>
<tbody>
<tr>
<td>한종희</td>
<td>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부장</td>
<td>11년~13년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품개발팀장</td>
<td>없음</td>
</tr>
<tr>
<td></td>
<td></td>
<td>13년~15년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실장</td>
<td></td>
</tr>
<tr>
<td></td>
<td></td>
<td>15년~17년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td>
<td></td>
</tr>
</tbody>
</table>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table>
<thead>
<tr>
<th>후보자성명</th>
<th>체납사실 여부</th>
<th>부실기업 경영진 여부</th>
<th>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th>
</tr>
</thead>
<tbody>
<tr>
<td>한종희</td>
<td>해당 사항 없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탁월한 경영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사회와 사업조직간의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

확인서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보고자: 한종희 (사진 또는 난인)
2-2호 의안) 사내이사 최윤호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table>
<thead>
<tr>
<th>후보자성명</th>
<th>생년월일</th>
<th>사외이사 후보자여부</th>
<th>최대주주와의 관계</th>
<th>추천인</th>
</tr>
</thead>
<tbody>
<tr>
<td>최윤호</td>
<td>63.1.11</td>
<td>사내이사</td>
<td>없음</td>
<td>이사회</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총 ( 1 ) 명</td>
</tr>
</tbody>
</table>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table>
<thead>
<tr>
<th>후보자성명</th>
<th>주된직업</th>
<th>세부경력</th>
<th>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th>
</tr>
</thead>
<tbody>
<tr>
<td>최윤호</td>
<td>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td>
<td>10년~14년 미래전략실 전략1팀</td>
<td></td>
</tr>
<tr>
<td></td>
<td></td>
<td>14년~17년 무선사업부 지원팀장</td>
<td></td>
</tr>
<tr>
<td></td>
<td></td>
<td>17년~20년 사업지원TF</td>
<td></td>
</tr>
<tr>
<td></td>
<td></td>
<td>20년~</td>
<td></td>
</tr>
<tr>
<td></td>
<td></td>
<td>경영지원실장</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범죄상 결격 사유 유무

<table>
<thead>
<tr>
<th>후보자성명</th>
<th>체납사실 여부</th>
<th>부실기업 경영진 여부</th>
<th>범죄상 결격 사유 유무</th>
</tr>
</thead>
<tbody>
<tr>
<td>최윤호</td>
<td></td>
<td></td>
<td>해당 사항 없음</td>
</tr>
</tbody>
</table>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다양한 주요 보직을 거치며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재무 분야 전문성을 입증하여 이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중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보고자: [사진]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제52기)

<table>
<thead>
<tr>
<th>이사의 수 (사외이사수)</th>
<th>11(6)</th>
</tr>
</thead>
<tbody>
<tr>
<td>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td>
<td>550억원</td>
</tr>
</tbody>
</table>
전기(제51기)

<table>
<thead>
<tr>
<th>이사의 수 (사외이사수)</th>
<th>11(  6  )</th>
</tr>
</thead>
<tbody>
<tr>
<td>실제 지급된 보수총액</td>
<td>179억원</td>
</tr>
<tr>
<td>최고한도액</td>
<td>465억원</td>
</tr>
</tbody>
</table>

※ 당기(52기) 보수 한도 총액 550억: 일반보수 300억, 장기성과보수 250억  
전기(51기) 보수 한도 총액 465억: 일반보수 375억, 장기성과보수 90억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삼성전자는 이번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0년 3월 8일 ~ 2020년 3월 17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분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